



兩性平等社會에서 母系血族의 宗員資格



사천이씨 대중회
회장 이 선 영

무술년 새봄을 맞이하여 춘계대제향에 참석하신 사천(동성)이씨 종인 여러분과 1만 1,500여 종인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8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대중회는 매년 4월 셋째 일요일 조원사에서 전국 각지의 많은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공 이하 6세 7위의 공동선조의 제사를 봉향하고 있습니다. 대중회는 춘계대제 봉향뿐만 아니라 선조의 훌륭한 유적을

발굴·보존하고, 때로는 종중을 대표하여 종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될 때도 있게 됩니다.

최근 법률신문에 기고된 글에 따르면, K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성(姓)을 아버지 성인 김씨에서 어머니 성인 이씨로 변경한 후, 어머니 소속 종중에 대해 자신도 이씨종중의 종원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종중에서는 “모계혈족인 사람은 종원자격이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K씨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종중이 본질적으로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라는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여 K씨에게 어머니의 소속 종중의 종원자격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여년 전부터 우리사회는 전통 가족문화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

본 변경 추세를 보면 2010~2015년 사이에 매년 7천~8천 건의 성 변경허가 신청 중 75.4~88.3%의 높은 변경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양성평등사회에서 이제 부계혈족이나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부장적(家父長的) 부계혈족만을 종중이나 문중의 종원자격을 인정하는 시대는 지나고, 딸도 제사 참배를 해야 할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시집보내는 딸에게 “여자는 혼인하면 출가외인이라 더 이상 친정 사람이 아니니 친정에는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선조님들의 말씀은 현대사회에서 남녀 차별을 뜻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시집가서 먹고살기 힘들 때나 시어머니 구박이 심할 때에는 친정생각 말고 참고 견디며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시대 선조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수준 높은 지혜이며, “시집가서 살기 괴로우면 친정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보다 훨씬 교육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시집간 딸이 견디지 못해 친정으로 돌아온다면 가족 질서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양성평등사회에서 모계혈족이 어머니의 성과 종중을 선택하였다면 기꺼이 모(母)가 속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족보(族譜)에 등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할 것이고, 그 모계혈족은 뿌리 없이 방황할지 모릅니다.



2018 대종회 정기이사회

- 일시 : 2018년 2월 24일(토) 11:00
- 장소 : 조원사 일원재



2017년도 중요 증무 보고

1. 2017. 2. 12(일). 11:00 조원사 일원재, 정기이사회 개최

- ▶ 대종회 규칙 일부개정
- 수석부회장제 신설(제8조)
- 토지 및 특별기금 조성 근거 신설(제20조의2)
- ▶ 제9대 임원 선임(임기: 2017년 4월 ~ 2020년 4월 총회일까지)



2. 3. 21(화). 11:00 구계서원, 구암선생 제445주기 제향 거행

- ▶ 회장 외 종인 다수 참배



3. 4. 16(일). 11:00 조원사, 춘계대제향 및 총회

- ▶ 유사문중 : 첨정공 증선문중(대표: 봉록)
- ▶ 초헌관 문중 : 진사공파문중(대표: 남민)



4. 4. 30(일). 10:00 제8회 구암제 실시

- ▶ 장소 : 사천시청 노월광장(와룡제 기간 중)
- ▶ 내용 : 시화전, 구암선생 과거시험 재현, 전국시조경창대회(구암대상)
- ▶ 다수 종인 참석



5. 5. 22(월). 10:00~ 구계서원 주관 경주 서악서원 견학 지원



6. 10. 29(토). 오후 3시~5시 구계서원 및 조원사 방문

- ▶ 방문자 : 퇴계학회 부산연구원 이사장·원장·임원·운영위원 등 27명
- ▶ 안내자 : 회장, 총무국장, 영섭 이사(설명)
- ▶ 기념품 증정 : 수서시첩 30권, 방문기념 타올



7. 12. 9(토), 14:00 제16회 구암학술세미나 개최

- ▶ 개최장소 : 사천시청 대강당
- ▶ 주최 : 사천시
- ▶ 주관 : 사천문화원
- ▶ 문중참석 : 약 40명(부산화수회 25명, 진주, 사천지역 15명)
- ▶ 사회자 : 국문학박사 이은식(구계서원장, 구암연구소장)
- ▶ 좌장 : 정우락 교수(국립경북대학교)
- ▶ 제1주제 : 구암집 간행과 사천지역 퇴계학맥의 계승
 - 발표자 : 우정임 교수(국립부산대학교)
 - 토론자 : 구진성 교수(국립경상대학교)
- ▶ 제2주제 : 구계서원의 역사자료 관리 실태에 관한 소고
 - 발표자 : 김익재 교수(국립경상대학교)
 - 토론자 : 김중구 교수(국립경북대학교)



8. 구암학총서 발간사업 1차년도 경과보고(구계서원)

-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5개년)
- ▶ 문중협조 :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암선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총서 발간 추진위원회에 제공



9. 구암묘소 문화재 표시판 설치

2018년도 주요 중무 계획

1. 구암선생 제 446주기 제향 거행

- ▶ 일시 : 4월 15일(일요일, 음 2.30, 丁丑). 오전 11:00
- ▶ 장소 : 구계서원



2. 조원사 춘계대제향 및 총회

- ▶ 일시 : 4월 15일(셋째 일요일). 오전 11:00
- ▶ 유사문중 : 성균진사공파 화암문중
- ▶ 초헌관 문중 : 참의공파 문중
- ※ 2019년 4월 춘계대제
 - 유사문중 : 백인재공파 고읍문중
 - 초헌관 문중 : 첨정공파문중



3. 제9회 구암제

- ▶ 일시 : 4월 29일(일요일). 오전 10시
- ▶ 장소 : 사천시청 광장



4. 제17회 구암학술세미나 개최

- ▶ 일시 및 장소 : 12월 일자, 장소 미정

대종회 선조유적보존연구위원회 구성

- ▶ 구성취지 : 구암학술세미나, 구암제, 구암탄신 500주년기념행사 등 사천지역에서 일기 시작한 구암학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전국 각 대학으로 파급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대종회에서는 구암 선조를 비롯하여 모든 선조의 유적이 제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5세 영규 고문의 발의로 대종회 선조유적보존연구위원회 구성을 결의함.
- ▶ 위원회 구성 : 대종회 회장, 총무국장, 봉록(22세 고문), 영규(25세 고문), 영섭(25세 이사), 영근(24세 수석부회장), 경규(24세 이사), 승열(27세 이사), 형환(25세 부회장), 태원(29세 우소재파) 이상 10명.
- ▶ 첫 회의 : 2018년 4월 15일(토요일). 15:00 조원사 일원재



대종회 발전기금

- ▶ 대종회 발전기금 100만원 쾌척 : 선조유적보존연구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24세 태희 감사가 대종회 발전기금 100만원 쾌척함.



석간대(石澗臺) 이별시(離別詩)



참지공파 24세손
이 경 규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주차장에서 옛길로 내려가 보면 오른쪽 산자락 끝에 '석간대' 라고 새겨진 비석 하나가 풍상에 닳은 채 서 있고, 산허리엔 커다란 바위가 소나무를 의지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은 가정임술(1562년) 3월에 퇴계선생이 구암선생을 송별한 자리에서 당나라 시 한수를 써서 이별의 정을 나타내었는데, 그 때 써 준 시와 사연을 을미(1595년) 2월에 바위에 새겼다. 지금 이 각석은 처음 새겨진 것이 아니고 구각이 물에 잠기게 되어 본을 떠서 여기에 옮겨 새겼다고 한다. 비록 원석을 보지 못하지만, 노 선생의 구암선생 사랑이 잔잔한 감동으로 밀려온다. 바닥을 70×115cm정도 고르고 글이 새겨져 있는데 글의 내용으로 보면 한시부분은 퇴계선생의 글이고 사연을 나타낸 부분은 아마 이 글을 돌에 올린 제자의 글인 것 같다.



君去春山誰共遊/鳥啼花落水空流/今朝送別臨流水/他日相思來水頭

그대 가고나면 봄 산을 누와 함께 노닐까?
새 울고 꽃 떨어지니 강물만 부질없이 흐르네.
오늘 그대를 보내고자 시냇물을 대하니
다른 날 그리워지거든 물가로 오시게.

此唐人絕句也/嘉靖壬戌三月/老先生送別李龜巖於此臺/書此詩以贈行/乙未二月/舊刻在石澗巖/石入於水沒苒摹而移刻

이는 당인의 절구이다.(唐人絕句: 당나라 시대 유상(劉商)의 송왕영(送王永)이라는 시) 가정임술(1562년) 3월에 노선생이 이구암을 이 대에서 송별하면서 이 시를 써서 갈 때 준 것이다. 을미(1595년) 2월에 이 시를 새긴 것이 석간암 돌에 있던 것인데 수몰되면서 이것을 그대로 본을 떠서 옮겨 새겼다.

石澗臺 原本
君去春山誰共遊
鳥啼花落水空流
今朝送別臨流水
他日相思來水頭

此唐人絕句也
嘉靖壬戌三月
老先生送別李龜巖於此臺
書此詩以贈行
乙未二月
舊刻在石澗巖
石入於水沒苒摹而移刻

▲ 석간대에 새긴 글의 임시(臨書)-필자(이경규)의 글씨

지난 1974년 안동댐 조성으로 인해 수몰돼 지금까지 정확한 위치를 몰랐던 원(元) 석간대(石澗臺) 비문이 2006년 11월 8일 발견된 바 있다. 이 비문은 서원주변 환경을 정비하던 도산서원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석간대(사진의 좌상단)는 원석간대(사진의 우하단 일하는 곳)로부터 약 10m 정도의 언덕에 조성하였고 당시 비문을 탁본하여 새겨 둔 것이다. 한편 안동시는 석간대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흙으로 다시 덮는다고 하였다.(당시의 뉴스 참조)



집중하는 생활



우소재공파
25세손 이 영 춘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끝없이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날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세상살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모르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새롭게 아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 알게 되면서 우리들은 성장하게 되고 그런 배움이 알게 모르게 쌓여지면서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책상위의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통한 배움도 아주 많습니다. 먼 친척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척들의 호칭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등 모두가 배우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을 잘 알게 되며 슬기롭게 사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배움이 즐겁지 아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배움이 즐겁다는 것은 배움에 익숙해져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에 재미를 붙여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움이 생기게 되며, 배움 때문에 서로 뜻이 맞는 친구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배움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공부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적은 좋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참고서 덕분일까요? 아니면 좋은 학원에서 공부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일을 할 때 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려면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해야 되고, 운동을 할 때는 오직 운동에만 정성을 쏟아야 하며, 그리고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어 끝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꾸준히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사람의 능력은 별로 차이가 없으며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집중력 있게 최선을 다하였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한 가지 일에 집중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해야 되고, 운동을 할 때는 오직 운동에만 정성을 쏟아야 하며, 그리고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어 끝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꾸준히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사람의 능력은 별로 차이가 없으며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집중력 있게 최선을 다하였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한 가지 일에 집중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구계서원 (龜溪書院)

- 지정번호: 제40호
- 소재지: 사천읍 구암리 산 43번지
- 지정일자: 1983년 8월 11일
- 규모: 3,967㎡

구계서원은 사천읍 구암리 만죽산(萬竹山)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향교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계승된 지방의 공공교육기관(公共教育機關)이라 한다면 서원(書院)은 조선 중기에 보급된 지방의 사학기관(私學機關)으로서 유현(儒賢)의 위패를 모시고 유림(유학자)들의 학문을 장려한 기관이라 하겠다.

조선시대는 건국초부터 육영(育英)에 힘을 써 고려시대의 사원(寺院)을 대신하여 서재(書齋), 서당(書堂), 정사(精舍), 선현사(先賢祠) 등을 장려하였다. 중종 37년(1542)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 곤양군수를 지낸 바 있음)이 순흥(順興)에서 고려시대의 학자 안향(安祥: 安裕)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듬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한 것이 우리 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서원이었다. 이후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액(額)을 하사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 임금이 이름을 지어 하사된 서원)이 되었으며, 또한 황폐되어 가던 향교를 대신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원이 각처에 설치되었다. 이상으로 살핀 바와같이 구계서원은 명종 때 높은 벼슬을 두루 거친 문신(문관인 신하)이자 학자인 구암(龜巖) 이정(李楨) 선생을 기리고 향사(享祀: 제사를 지냄)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처음은 이정선생이 별세한지 40년 만인 광해군 3년(1611)에 유도(儒道)를 닦는 학자들과 고향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향리인 만죽산 아래에 구산사(龜山祠)란 사당을 지었다.

이후 인조(仁祖) 23년(1645) 4월에는 사천 사림(유학자)들의 소청(疏請: 임금에게 알리어 창함)으로 나라에서 구계(龜溪)라는 액호가 내려 이때부터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로부터 190여년이 지난 고종 5년(1868), 대원군(大院君: 고종의 아버지)이 섭정(攝政: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림)하자 전국에서 사표가 되는 47개의 사액서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미흡한 사액서원은 모두 훼철(철폐) 당했다. 그러다가 60여 년이 지난 1931년 봄에, 대관대유계(大觀臺儒契)의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서원이 복건(復建)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3년 12월에 사단법인체로 등록되고 이어 1983년 8월 6일에 도지정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현재 서원에는 구암(龜巖) 이정(李楨)선생과 퇴계(退溪) 이황(李滉)선생 및 대사헌(大司憲)의 벼슬을 지낸 성옹(醒翁) 김덕함(金德咸)선생 세 분의 위패를 모셔 놓은 묘당(사당)과 뜰 아래에는 구산사비를 비롯하여 김덕함(金德咸), 최관(崔瓘) 두 선생의 기적비(紀績碑)가 나란히 서 있고, 또 내삼문(금기문) 밖에는 동쪽에는 거경재(居敬齋)와 명의재(明義齋), 서쪽에는 구계서원, 남쪽에는 풍영루등의 건물이 있다. 그리고 구산사비에 새겨 놓은 비명(碑銘)은 숙종 때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바 있는 양천(楊川)사람 미수 허목(許穆)이 지었다. 명(銘)에 가로되 '명(冥)은 물에 근심하였기에 제사하며, 용(龍)은 땅에 근심하였기에 제사하노라' 하였다. [한국의 서원 및 사천의 문화유적에서 발췌]



구암 척유(摭遺) - 기록물 모음 -

구계서원장 문학박사 이 은 식

구암선생에 관해서 일생을 평하여 놓은 글들이 많이 있다. 조선조 유학자들이 구암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구암선생이 어떠한 인격과 학문, 그리고 사상과 일상을 지니고 생활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덕흥이 퇴계선생에게 가장 학문에 뛰어난 자가 누구인지 묻자 퇴계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구암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인에 가깝다. 그리고 규범을 준수하니 틀림없이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陶山諸子錄》

남명선생이 말하기를 “구암은 매번 아버지 봉양을 위해 외직을 요청하였고, 일찍부터 학문을 좋아해 책을 놓지 않았다.”

《南冥師友錄》

구암선생은 기상에 화기가 있고, 인정이 두터우시며, 덕성과 용모가 수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질문할 수 있게 하면서 스스로 나태하게 할 수 없게 하신다.

《成浮查師友錄》

선생의 성은 이(李) 휘는 정(楨) 자는 강이(剛而)이며 사천사람이다. 가르침에는 선비의 향기가 있고, 백성들은 그 덕을 앙모하였으며, 관리들은 공의 깨끗함에 복종했으나,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도다. 아아! 그 올바름이여!

《慶州去思碑》

도대체 구암선생은 그 영역이 어디까지 일까? 구암학술발표회를 거듭할수록, 또한 구암총서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구암에 대한 영역은 넓어지고 깊어진다. 나는 괜히 구암선생을 그냥 대단한 우리지역의 선비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을 우리 고을에 알려져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어리석었다는 후회가 앞선다.

도대체 구암선생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그가 남긴 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분량의 서적만으로도 밝혀지는 구암의 영역은 폭발적으로 확대되어지니 두 손을 들고 뒤로 나자빠지는게 그분의 학덕에 누를 끼치지 않지 않는 것일 수 있겠다 싶다. 어쩌면 좋을까? 서둘러 구계서원 원장을 학문이 뛰어난 분에게 맡기고 나오는 길이 덜 민망한 길인성 싶다.

올 봄에는 구계서원에 단청을 시작하고 있다. 너무 화사한 건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처럼 구암선생의 모습도 조금씩 단아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 천만 다행이다. 이제 빨리 내 뒤에 오는 분이 맑은 피리를 불며 구암의 전령사로 드러내기를 기대한다.

아아 와옥(蝸屋)으로 숨어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축복하는 말



참의공파 25세손 이준

웃는 얼굴에는 웃을 일만 생기고, 찡그린 얼굴에는 찡그린 얼굴만 생긴다. 옛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다. 뇌 연구자들이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뇌의 연상 작용 때문에 하나의 생각꼬투리에 사로잡히면 뇌는 그쪽에 관련된 생각들만 들춰 끄집어낸다고 한다. 이른바 인연효과고 프레이효과며 광고효과고 끝말잇기 효과다. 이는 어떤 사물이 똑 같은 것들, 또는 유사한 것들을 끌고 오든지 아니면 전혀 상반된 것들을 끌어오는 작용력을 말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이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기에 그 결과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방어논리 개발 때문에 실패에 대한 전문가는 될지 언정 성공하는 전문가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 수 밖에 없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뇌세포는 묘하게도 안면 근육의 꿈틀거림과 위치에 따라 그 작용력을 달리한다고 한다. 그래서 웃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 우려들을 정지되고 웃을 일들만 생기고, 근심걱정을 하게 되면 근심걱정에 관련된 낱말들만 주저리주저리 열린다. 그리하여 이 좋은 날 활짝 핀 꽃향기 속에 얼굴 또한 활짝 펴서 웃어보자. 아울러 스스로에게 축복의 말을 던지자. 내 친김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환영을 말을 보내자, 마음속에 살아있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성공의 축사를 마음껏 뿌리자. 이 좋은 봄날에...

실종된 윤리 도덕



성균진사공파 26세손 이영섭

동방의 예의지국 한국!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패륜아, 묻지마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풍토, 사람을 납치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인신을 매매하는 등,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사회,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발생한 부정부패의 극성, 공직사회의 기강의 해이, 탐욕 등이 총체적으로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것 아닌가 싶다

김용호(金容浩)저 옥과(沃坡) 이종일(李鍾一)의 연구에 의하면, 120여년 전 개화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화가 마치 상하 장유의 질서나 사회질서가 없이 모든 질서가 파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연장자나 자기의 상사를 능멸하고 어떤 사람이 집안 어른들을 업신여기는 태도 따위가 개화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간파한 독립투사 옥과는 이처럼 개화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일을 바로잡고 깨우치도록 해서 사회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옥과는 1898년에 신촌정신(新村精神) 즉 새마을정신과 선개정신(先開精神) 제창하였다고 한다. 의식개혁 없이 물질문명이 급속히 발달하면 사회가 혼탁해진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를 개선코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선도하는 길은 신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898년에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10년간 발행하였다고 한다. 선생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셨던 독립투사이며 국민의식 개혁을 주장하셨던 선각자이셨다.

도덕이란 비양심적 작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의예지(仁義禮智) 효제(孝悌) 충심(忠心)으로 정신을 가다듬지 않고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옛날에는 임금을 범으로는 다스릴 수 없었으나 도덕율로 다스렸던 시대 즉 임금이 잘못하면 상소를 올려 바르게 시정토록 건의하였다. 사람을 예로 대하고 의리로 어려움을 풀고, 재물에 대하여 청렴했던 선비정신이야말로 명랑하고 쾌적하며 사람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자녀의 효(孝)



백인재공파 25세손 이형환

유교 경전의 하나인 예기(禮記)에는 “부모는 자애(慈愛)롭고 자식은 효도한다.” 라는 말이 있다. 효는 부모님의 사랑인 자애에 대비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효(孝)는 키워주고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런 감정이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논어에서는 효를 올바른 삶의 정신인 인(仁)을 행하는 근본으로 보았으며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효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이라면 부모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몇 번을 강조하여도 과함이 없다.

퇴계 이황 선생은 “자녀가 부모를 잘 받드는 것이 효(孝)이며 효의 도리는 천리(天理)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선(善)의 으뜸이다.” 라고 하여 효를 천지자연의 이치인 천리(天理)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보았다.

율곡 이이 선생은 “낳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가 높은 하늘처럼 끝이 없으므로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효를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타고 난 본성이라고 여긴 것이다. 효는 물질은 물론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공존할 때에 참된 효라고 본다.



- 효경(孝經)의 요지(要旨) -

1. 천자(天子)의 효(孝) :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2. 제후(諸侯)의 효(孝) : 남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지위가 높아져도 위태롭지 않고 비용을 절약하고 법도를 지키면 재물이 가득차도 넘치지 않는다.

끝으로 예(禮)란 인간으로써 갖추어야 될 기본 도리이며 오직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기준이라 할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예(禮)는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예(禮)의 근본은 차이가 없는 법이다. 예(禮)를 통해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심지어 친구사이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에서 겪어야 하는 기본 예의는 천태만상일 만큼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띠고 있으나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인간이기에 실천하여야 할 첫 번째 조건이며 이는 배움과 학식을 갖춘 덕망 있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흔히 말하는 “매너가 있는 사람” 사람이라 말한다.



성균진사공파
25세손 이영규

사천(동성)이씨<泗川(東城)李氏>의 본관(本貫)과 파(派)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사천(泗川)의 옛 지명은 다른 이름으로 동성(東城)이라고도 불렀다. 사천의 연원(淵源)은 본래 가야시대 포상팔국(蒲上八國)의 하나인 사물국(史勿國)이던 것이 삼국시대에 이르러 신라에 의해 사물현(史勿縣)이 되었고, 신라 경덕왕(742-764)이 사수(泗水)로 고쳐 고성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초 진주목(晉州牧)으로 이속(移屬)되었다가 현종(顯宗, 고려 8대왕)때 사주(泗州)로 개칭되고, 조선 태종(太宗, 1423년)때 다시 사천(泗川)이라 개칭, 다른 이름으로 동성(東城)이라고 불리어졌으며, 고종(高宗)대에 이르러 군(郡)으로 되어 오늘에 이른다.

시조(始祖) 휘(諱) 식(軾)은 고려 충렬왕 때 국자진사로 송악군수로 지냈으며, 이후 태종 때 성균관 진사로 담양교도를 지낸 휘(諱) 자(穉, 6세)에 이르기까지 6대가 내리 진사에 급제, 지체 높은 선비집안으로 가문의 이름을 빛내었다. 특히 6세조 자(穉)는 어진데다가 수고(壽考, 오래 삶)로 승평세에 소문이 났는데 상국 강맹경이 수서시(교도공(穉)의 장수하심을 찬미하는 시)를 지어 후세에 그 일을 전하였다. 자(穉)가 성균진사 이륜(彝倫)을 낳았는데 이분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특출한 효도로 소문이 났었고, 이륜이 맹주(孟柱, 8세)를 낳았는데 이분 또한 지효지성으로 아버지를 모셨으며, 거상(居喪)을 잘 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훌륭하게 여겼다.



始祖松岳郡守公奉安告由

이후 후손들이 사천에서 누대에 걸쳐 사족으로 토착세거하며 사천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으며 모두 식(軾)을 시조로 하는 같은 뿌리이다.

사천(동성)이씨의 종파(宗派) 세계(世系)는 장파(長派) 4계와 계파(季派) 4계, 상계(上系) 1파로 모두 9파로 나뉘어진다. 장(長)·계(季) 8파는 6세조 자(穉)의 아들 두 분으로 장자(長子) 구주(九疇, 7세)가 장파 4계를 두었고, 차자(次子) 이륜(彝倫, 7세)은 계파 4계를 둬서 각각 진북(晉北)과 진남(晉南)에서 8파의 현조가 되었다.

장파(長派) 4계는 7세 구주(九疇)의 증손인 수화(秀華), 수영(秀榮), 수계(秀桂)로부터 분파되었다. 10세손 수화(秀華)는 병조참지(兵曹參知) 경(經, 11세)을 낳고 경(經)의 아우인 위(緯)는 성균진사 을연(乙椽, 12세)을 낳았으며, 또 10세 수영(秀榮)은 예조참의(禮曹參議) 윤(綸, 11세)을 낳고, 수계(秀桂)는 훈원첨정(訓鍊院僉正)을 지낸 영(英, 12세)의 할아버지가 되니, 이로부터 장파는 참지공(參知公), 진사공(進士公), 참의공(參議公), 첨정공(僉正公)의 4계로

분파되어 각각 파조가 되어 후계의 창성(昌盛)을 이루었다.

계파(季派) 4계는 교도공(穉)의 둘째아들 이륜(彝倫, 7세)의 아들 맹주(孟柱)가 장차(長次)를 두었는데, 첫째아들이 이번(以蕃, 9세), 둘째아들이 이창(以昌)이다. 교도공(穉)의 증손인 이번(以蕃)은 사천이씨의 현조이신 구암선생의 조부가 되고 선생의 직손으로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를 지낸 호변(虎變)의 호가 우소재(迂疏齋)이며, 그의 아우 진사 곤변(鯤變)의 호는 백인재(百忍齋)이다. 또 이번(以蕃)의 아우 이창(以昌, 9세)은 아들 두(斗)를 낳고, 두(斗)는 번(藩, 11세)과 근(根)을 낳으니 구암선생과는 종형제 사이가 된다. 번(藩)은 성균진사를 하고, 근(根)은 선무랑이었으니 이로부터 계파에도 우소재공(迂疏齋公), 백인재공(百忍齋公), 성균진사공(成均進士公) 그리고 선무랑공(宣務郎公)의 4계로 각각 분파되었다.

또한 상계 1파는 생원공파로서 시조의 6세손인 자(穉)의 아우 육(穉)이 그 파조이다. 이 파는 사천(동성)이씨의 종족이 분파된 최초의 계파로서, 파조인 육(穉)은 문행으로 당세에 저명하였으며 성품은 청렴을 즐기어서 영달에 기울지 않고 오로지 현효사친함을 본으로 삼았다.

각 파조의 세거지가 진북과 진남으로 이주 번천되면서 장파의 제일 큰 집은 송곡리를 중심으로 함안, 거창, 전남 담양으로, 진사공은 충남 공주로 옮겼으나 참의공과 첨정공은 계파에 따라 환향하여 사천에서 근거를 넓혀 후손의 번창을 도모하였다. 계파에 있어 우소재공의 후손은 4대계 29소문중이 있고, 주된 세거지는 사천의 정동 대산, 가곡, 예수와 합천, 거창, 하동, 전남의 광양, 구례, 승주와 전북 전주 등지이나 지금은 경향 각지(서울, 부산, 대구, 창원, 진주)에 분포하여 향글다운 자부와 명망이 있는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또 백인재공 후손은 4대계와 45소문중이 있으니 세거지는 사천 일원을 비롯하여 하동, 거창, 합천, 함양, 남해, 통영, 경북 고령, 김천, 전남 광양, 전북 운봉, 남원 등지인데 지금은 진주를 비롯하여 창원, 부산, 대구 등지와 경향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종파(宗派)의 세계(世系)

1) 장파 4계

6세조이신 교도공(教導公) 할아버지는 아들이 두 분으로 횡자(諱)는 구주와 이륜이다. 장파 4계는 7세조이신 구주 할아버지 증손이신 수화, 수영, 수계로부터 근원이 된다. 10세조이신 수화 할아버지는 병조참지 경을 낳고, 참지공의 장제(長弟)되시는 위는 성균진사 을연을 낳았으며 수영 할아버지는 예조참의 윤을 낳았으며 숙계 할아버지는 훈원첨정을 지낸 영의 할아버지가 되시니 이로부터 장파는 참지공, 진사공, 참의공, 첨정공의 4계로 분파되어 각기 파조가 되어서 후계의 창성을 이루었다.

가) 참지공파

공은 11세조로 횡자(諱)는 경이요 호는 매강이시다. 1506년에 등과하여 훈원원주부를 지냈으며 소임을 힘써 행하고 학문이 독실하여 문장이 뛰어났으니 이 사행으로 임금님에게 천문되어 병조참지로 증직되었으니 이분이 곧 참지공파의 파조가 되신다. 만년(1558년)에는 구암과 남명 그리고 김홍 등 여러 현유들과 어울려 도의 교류하였음이 여러 사록에 올라있다. 공의 후손은 세세마다 거듭 번창하여 진양의 송곡, 가정, 북창, 광석, 덕진, 용암과 함안의 용성, 합천의 봉산, 거창의 가조, 광성, 기리, 고성, 마암, 하일, 담양의 원산, 월계, 북정 등지에서 세거하고 근래에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마산, 진주 등 여러 지역에서 7대계 45소문중의 자손들이 각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다.

나) 진사공파

공은 12세조로 횡자(諱)는 을연으로 성균진사를 지냈으니 진사공파의 파조이다. 공의 세후는 대대로 무과에 올랐으니 많은 훈공과 사적이 있을 것이나 사승과 행장을 세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살필 길이 없고 또한 세장지가 충남 공주인 것으로 보아 벼슬 따라 이거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나 후손들은 2대계 다섯 소문중이 논산과 대덕, 대전 등지에서 선행을 멀리 두고 족의를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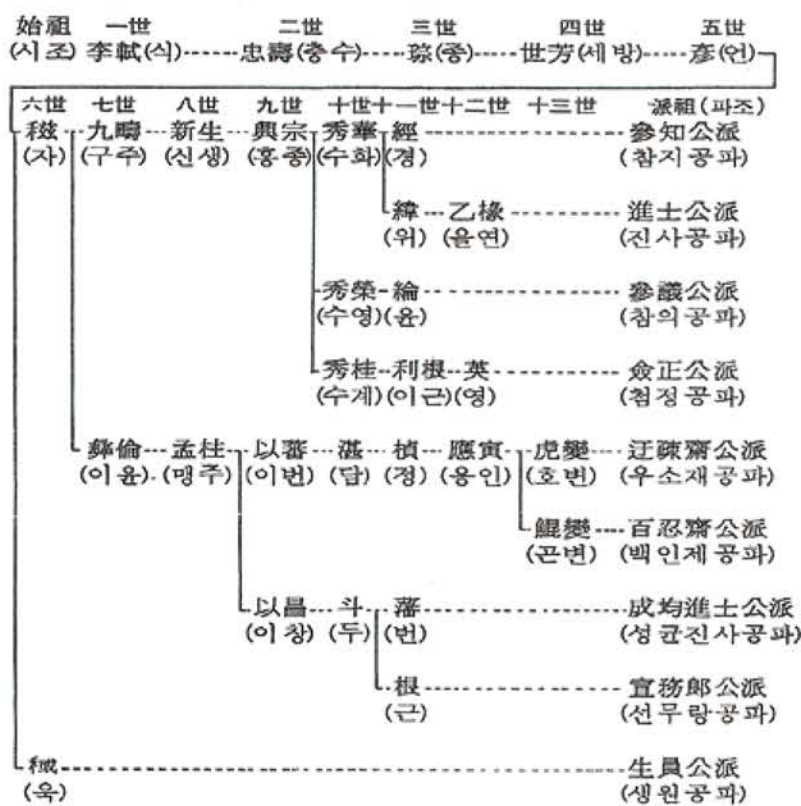
다) 참의공파

공은 11세조로 횡자(諱)는 윤(1502-未詳)이니 1526년(중종 2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참의에 올랐으니 참의공파의 파조가 되신다. 공은 여러차례나 임금님의 부름이 있었으나 벼슬길에 더 나가지 아니하고 향리에 서당을 세우고 구암선생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여 문장이 높았다. 공의 후손들은 훈원첨정, 부호군, 보공장군, 절충장군 등 무관 벼슬로 대를 이었고 특히 서벽재공(1765-1834)의 3대를 이은 효행은 신인이 감복한 이적으로 일어난 효감고사와 효행시, 효자의 노래 그리고 포현문을 엮은 효감록은 오늘날에도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공의 세후 10대의 세장지를 여흥동에 두고 지금은 진양의 수곡과 대평, 산청의 단성, 하동의 옥중, 북천, 양보, 그리고 곤양, 곤명, 진주 등지에 2대계 열두소문중의 자손들이 세연을 펴고 근실하게 살고 있다.

라) 첨정공파

공은 12세조로 횡자(諱)는 영(1624-未詳)으로 첨정공파의 파조이다. 공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훈원원첨정으로 공훈이 있어서 선무원종 공신에 오르고 품계가 통정 정삼품 당상관에 이르렀다. 공의 행장에 이어 세후의 행적을

상세계도 (上世系圖)



소상하게 밝혀 적을 수가 없음을 가슴을 세장하지 못한 연유이거나 실전하였음이나 상고할 수 있는 여러 흔적을 찾아 사실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의 후손들은 3백년 동안을 세장지를 지켜 사천 축동 근린에서 세거하고 있으며 3대계 12소문중으로 지금은 사천읍과 축동의 동치, 곤양과 영암 그리고 광양의 옥룡, 서울, 부산, 마산, 진주 등지에서 세장지를 인근하여 크게 덕목을 쌓아가고 있다.

2) 계파(季派) 4계(系)

교도공(敎導公) 할아버지의 차자 이륜의 아들 맹주가 장차(長次)를 두었으니 이번과 이창 두형제이다. 9세조이신 이번은 동성이씨의 현조이신 구암선생의 조부가 되시고 선생의 손자로 균기시주부를 지낸 호변이 우소재이며 작은 손자 곤변이 백인재이다. 또 이창 할아버지는 두를 낳고 두는 번과 근을 낳으니 번(蕃)자할아버지가 성균진사공이시고 근(根)자할아버지가 선무랑공이시니 이로부터 계파에도 우소재공, 백인재공, 성균진사공, 선무랑공의 4계로 분파되었다.

가) 우소재공파

공은 13세조로 자는 자무이고 호는 우소재이며 휘자(諱)는 호변(1549-1596)으로 우소재공파의 파조이시다. 공은 구암선생의 장손이니 할아버지로부터 학문을 사사 받았으며, 1570년에 동생 곤변과 나란히 문과에 급제함으로서 선생의 총애를 받았다. 공은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균기시주부를 지내고 학문이 뛰어나 문장으로 명성을 크게 떨쳤으며 기질이 순미하고 천성이 효우하였으니 늦게는 벼슬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공의 후손은 4대계 29소문중이 있고 주된 세거지는 사천의 정동, 대산, 가곡, 예수와 합천의 양지, 삼가, 거창의 남상, 남하, 신원, 하동의 금남, 광양의 봉강, 다압, 옥룡, 구례의 간전, 승주의 해룡과 전주 등지이나 지금은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진주 등 다수 지역에서 향골다운 자부와 명망이 있는 자손들이 많다.

나) 백인재공파

공은 13세조로 자는 자거이며 호는 백인재라 하고 휘자(諱)는 곤변(1552-미상)이니 백인재공파의 파조가 되신다. 공은 구암선생의 사려가 많았던 애중지손으로 열여덟에 진사시에 올라 삼천진(지금의 삼천포) 권관을 지냈으며 우소재공과 더불어 임란때 충무공(이순신 1554-1611)을 도와 무공을 세웠으니 실지에 공의 행적이 올라있다. 공은 학문과 문장이 대통하여 사리가 트인 걸출로 일찍이 오리 이원익(1547-1634)은 남주의 인물됨을 공의 인품과 덕목을 칭찬하였으며 또한 많은 사서를 남겼으나 세전하는 것은 의화졸변 한권이 있을 뿐이다. 공의 후손은 4대계와 45소문중이 있으니 세거지는 사천일원과 하동의 화개, 청암, 금남, 악양, 진교, 거창의 가북, 고제, 가조, 방소, 마리, 용산, 용주, 위천, 남상, 합천의 양지, 함양의 안의, 남해의 삼동, 통영의 저구, 남원, 운봉, 광양, 진안, 부귀, 김천, 고령, 덕곡 등지인데 지금은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진주를 비롯 경향각지에서 덕망있고 존경받는 후진들이 많이 있다.

다) 성균진사공파

공은 11세조로 자는 정원이요 휘자(諱)는 번(1520년대)이니 성균진사공파의 파조이시다. 공은 보공장군을 지낸 은과 선무원종공신에 오른 연의 두 분 아드님 아래에 품계와 지체가 높고 많은 자손을 두므로써 예후의 창성을 도모하였으며 현조이신 구암선생과 더불어 선향에서 반역을 지키고 선업을 이어 왔다. 공의 후손은 사천을 중심으로 화암, 구암, 대곡, 만마, 용두, 병둔, 신복과 진해, 창녕, 함양, 통영, 사랑 등지에 세장지를 두고 근래에는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김해, 진주, 삼천포에서 2대계 25문중의 자손들이 대망을 키우고 있다.

라) 선무랑공파

공은 11세조로 자는 자회(子晦)요 휘자(諱)는 근(根, 1525년대)이니 선무랑공파의 파조이시다. 공의 행장에는 공의 성품이 인자하고 인정이 두터우며 학문에 일찍 뜻을 두어 재종형제인 구암선생과 더불어 서로 자주 만나 학문을 연마하고 만년에 곤양현 송비산 아래 성방리에 정사를 짓고 후생을 깨우쳐 지도하여 성취한 자 많았다 하였다. 균기시주부를 지내신 공의 아들 영(英, 12세)의 다음으로 3대를 이어 대부 벼슬에 오르고, 증손이 되는 의백(義白, 字는 士成, 1939-未詳)은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첨정(종4품)이 되었다.

공의 후손은 사천에서 곤명으로 곤명에서 하동 진교로 세장지를 옮겨 이곳을 인근하여 고흥, 양포, 고전, 황천, 남원 인월, 순천 그리고 하동읍에서 세거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서울, 부산, 진주, 거제, 삼천포 등지에 2대계 다섯 소문중의 자손들이 당당한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3) 상계1파

가) 생원공파

공은 6세조이시며 휘자(諱)는 육(1375년대)으로 생원공파의 파조이시다. 본파는 우리 종족이 분파한 최초의 상계1파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유일한 계파이다. 공은 많은 문행으로 저명하였으며 성품은 청렴을 즐기시어 부귀와 영화에 기울지 아니하고 현효사친함을 본으로 삼았다.

공의 후손은 3대계 28소문중이고 세장지는 합천의 계산과 봉산의 고삼, 저포, 야로, 봉계, 대성, 용주와 거창의 가조, 가북, 신원에 두고 지금은 대구, 부산, 서울 등 여러 곳에서 세거하며 대통을 이어 높은 기상과 선덕을 누리고 있다.

발(足) 십일자 걸음



참지공파 24세손 이 기 명

- 발의 십일자(11)형 걸음 걷기를 실행해보고 이 좋음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

허리가 구부령하다고 아내가 핀잔을 한다. 70노인이 되다 보니 그러려니 여긴다. 어느날 밤에 TV소리에 깨어나 보니 엄지왕 프로였다. 한 달 만에 허리 에스자(S)형 무릎관절을 교정했다는 안광욱 교수 강의로 발의 십일자(11)형 걸음걷기 실행이었다. 그로부터 나는 11자형 걸음 걷기 단련을 시작하였다. 그 후 KBS 아침마당의 "걸음아 날 살려라"에 안광욱 교수가 나왔다.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보니 계속 실행하여 단련하려는 결심이 고조되었다. 아내에게도 11자형 걷기하자고 본보기를 보이며 권하였다. 아내는 허리와 무릎관절이 안 좋은 상태라 매우 힘들다 하면서 몇 걸음 하더니 주저앉으며 배우려는 의욕이 소극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부령했던 낸 허리가 반듯해졌다 하더니 11자형 걸음을 적극적으로 단련하려 한다. 약20여일까지는 매우 힘들고 어색할지 몰라도 차차로 자연스러워 지면서 매력있는 걸음으로 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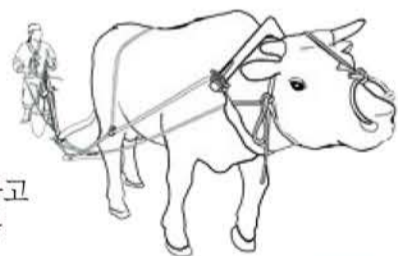
아무쪼록 11자형 걸음걷기 실행으로 건강을 복원하여 일상생활에 즐거움이 싹트고 행복을 생산하기 바란다.

두 살 때 자빠지지 않으려고 배운 여덟 팔(八)자형 자세 그대로 아장아장 걸음을 나이가 들어서도 걸었으니 허리 무릎관절이 무리동(無理動)하였기 때문에 빠르게 고장 나는 것인 줄 몰랐다. 팔(八)자 걸음이 아니고 십일(11)자 걸음하면 순리대로 율동(律動)함으로서 허리가 반듯해지고 발목관절 움직임에 장판지가 팽팽 느슨 율동으로 기쁜 기분이 걸음마다 느껴진다.

농부가 농사지으려고 송아지를 3살짜리로 길들이면 갈팡질팡하던 걸음이 점잖게 걸어가며, 쟁기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소로 변신한다. 소 우(牛) 걸음 보(步)로 쟁기질하는 능력 있게 길든 소걸음을 우보(牛步)라 한다.

나는 어릴 때 배운 걸음 -아장아장 걸음, 팔(八)자형 걸음-을 탈피하고 십일(11)자형 걸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쟁기질하고 점잖은 걸음을 하는 소를 우보(牛步)라 하듯 나는 스스로 우보인(牛步人)이 되어 11자형 걸음 걷기 실행을 홍보하려 한다.

꽤지나 칭칭 나-네 치-나 칭칭 나-네
현재 인연 만났으니 좋은 소식 선물이다
서는 자세 발 십일자 엉덩이에 힘준다
엉덩이 힘주니 척추골격 반듯하고
어깨 반듯 추슬러지니 매력있는 몸가짐
걸음시작 발가락 세웠다 내 딛는다
발목관절 움직임에 장판지 팽팽느슨
율동으로 기쁜기분 걸음마다 느껴진다
안교수 강의듣고 결심실행 고조되다
아장아장 팔(八)자걸음 건강기능 열악하고
발목 무릎 골반 척추 순리대로 관절운동
일치조화 움직임이니 혈액순환 원만하고
좋은습관 결심이행 건강연결 튼튼체력
꽤지나 칭칭 나-네 치-나 칭칭 나-네
분변집중 행동통제 중정으로 거동이다



단기4351년 서기2018년 3월 대곡 가정리에서

발 십일(11)자형 걸음으로 즐거움이 싹트는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식지 8호 원고 모집



여기 소식지 8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마시고 보내 주시면, 정성드려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 **소식지의 성격** : 학술적인 것 보다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중심으로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식
- ★ **원고의 장르** : 각 문중의 선조 또는 자손 이야기, 기행문, 수필, 시, 사진, 편지글, 논설, 종인들의 소식, 대종회 운영 현황 등등
-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 ★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8호 발행 일시** : 2019년 3월말, 대종회 춘향제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종회 사무국
-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 leeyg@chol.com
편집위원 이영근(선무랑공파 24세손)

